

순천보훈지청 보훈병원 위탁 교체 논란

국·공립병원 계약 만료...민간병원 지정 추진
보훈가족 대책위 “대기시간·교통불편” 반발

국가보훈처 순천 보훈지청이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의 보훈 위탁 지정병원을 뚜렷한 원칙 없이 민간 특정병원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미 성가물로 병원으로 특정해 놓고 공모 형식으로 3개 병원의 신청서를 받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3일 순천 보훈지청에 따르면 대학병원급인 순천 산재병원은 지난 1991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위탁가료 지정 요양기관으로 선정돼 전남 동부권 보훈가족들의 치료를 맡고 있다.

순천 관내 보훈 가족은 상이군경 등 9개 단체 3800여명에 이른다. 순천 산재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

하 국·공립병원으로, 지난해 국가보훈 복지의료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서비스 적정 평가에서도 전국 78개소중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르면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 순위로 국·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민간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 병원을 재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병원에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순천보훈지청은 2년 단위로 계약을 끝나는 오는 31일 순천 산재병원과 계약을 끝내고, 내년부터

진료 병원으로 민간 병원인 성가물로 병원을 내정한 채 보훈 위탁 지정병원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보훈지청은 병원 교체를 희망하는 279명의 서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보훈가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의 병원이 더 친절하고, 이용하기가 편하다’며 466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훈가족 대책위는 “순천 산재병원은 지난 22년 동안 적극적인 진료와 서비스로 제공되는 등 국가병원으로서 공익적인 진료를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활, 물리 치료를 받는데 더 할 나위 없이 편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가물로 병원은 현재 일 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

로 거동이 힘든 보훈 가족들이 3~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좁은 주차장과 교통 위험, 재활 치료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순천 보훈지청이 일부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영업 이익만을 중시하는 개인 민간 병원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석연치 않은 보훈지청의 공정치 못한 행정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 보훈지청 임동신 보상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회원들이 요구를 해 성가물로 병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응모를 한 3개 병원에 대해 지정 대상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외국계 대형마트 웬말이나”

순천지역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불태우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코스트코 순천 입점 반대운동 확산

부지매입 계약 체결...동·중부권 8개 시·군의회 반대 가세

순천시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 지역상권 위축 논란을 빚고있는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Costco)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최근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순천 에코벨리과 부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주고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양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내용, 추후 일정 등에 대해 밝힐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위반시 거액의 위약금 조항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는 사실상 ‘코스트코’가 입점 시기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트코’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배후 도시로 개발중인 신대지구 입점을 위해 410여억원을 들여 2만7388㎡의 토지 매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해 순천은 물론 광양과 여수 등 인근 상공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책위까지 결성, 입점 저지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 회원 300여 명은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민이 기대하였던 생산적인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해할 외국계 유통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중

소도시의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증을 불사르는 등 코스트코 입점 저지 운동을 펼쳤다.

순천시도 부지를 ‘코스트코’ 측에 팔지말라는 공문을 에코벨리에 보내는가 하면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전남동부와 중부권 8개 시·군의회까지 입점 반대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의 이번 부지 매입 계약은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코스트코에서 아직은 건물 신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허가를 신청해보면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백경 김무규 선생 추모 음악회

구례향제줄풍류 보존회, 내일 섬진아트홀

구례향제줄풍류 보존회(회장 이철호)는 15일 오후 3시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구례향제줄풍류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고 백경 김무규(1908~1994·사진) 선생 평전발간 및 단소음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을 연다.

이날 추모 공연에는 구례향제줄풍류 보존회의 풍류공연과 백경 김무규 선생과 인연이 있었던 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 김덕수 사물놀이, 계현숙의 관음무가 펼쳐진다.

특히 국립 국악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 백경 김무규 선생의 손자 김정승씨가 대금정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백경 김무규 선생은 우당 김윤덕의 거문고 풍류를 전수받았으며, 풍류명인 추산 전용선에게 단소를 배웠다. 이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줄풍류를 보존해 1985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83-1호)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구례향제줄풍류는 구례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현악



영산회상을 말한다. 음률을 익힌 이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사랑방에서 연주하던 일종의 실내악이며, 민간에서 연주되던 정악(正樂)으로, 긴 호흡과 담백한 선율이 특징이다.

구례향제줄풍류는 현 회장인 이철호(단소)를 비롯, 백경 김무규(단소), 우당 이순조(대금), 매성 김정애(거문고), 호전 조계순(가야금) 등 모두 5명의 인간문화재를 배출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kwangju.co.kr

보성역 광장 일대 쾌적한 쉼터로

내년 3월까지 8억 들여 정비

보성군 관문인 보성역 광장 일대가 쉼터로 변모한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역 광장에서 보성역 광장 정비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군은 공사비 7억원과 보상비 1억원 등 총 8억원을 들여 내년 3월말 완공 목표로 보성역 광장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한국철도공사와 광장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협약체결을 맺어 예산을 절감하는 1석2조의 효과도 거

뒀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성역~철도 건널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해 보성역~철도 건널목간 도로 392m를 확장했으며,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양측에 주차선을 설치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성역 광장을 편하고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시켜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고흥 군립도서관 장애인 눈높이 환경조성

고흥군 군립 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 군립도서관은 장애인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확대기와 휠체어·장애인 정보검색용 컴퓨터·낮탁이 조절 책상 등을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비치했다.

이와 함께 군립도서관은 시각 장애인과 중증 청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자택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홈페이지(www.ghlib.go.kr)를 통해 전자책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립도서관은 군민 누구나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소외 받는 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ju@kwangju.co.kr

광양만경제청-한국캠핑협 업무협력 합의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일시 : 12.12. 장소 : (사)한국캠핑협회 회의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과 (사)한국캠핑협회는 지난 1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광양항 신규 물류량 증대를 위해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양 경제청은 한국캠핑협회 및 회원업체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캠핑산업용품의 조립·가공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캠핑협회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신규 물류량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무궁화호/무박 2일

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곤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석탄박물관/하이원 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 스키장곤도라탑승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도라 탑승

소파 식탁 대전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금일 입점 신상품 120 종류

www.hong79.com(홍친구닷컴)